

# “방역수칙 지키는데니 노래방 열게 해달라”

### 국회 앞에서 장례식 퍼포먼스 진행 호소 ‘사업자등록증’ 사진에 검은 띠까지 둘러 “90일간 영업 못해 업주들 너무 지쳤다” “삶과 죽음 기로 해매...매일이 장례식”

“정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엄격한 고도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 달 넘게 영업을 못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 약 10여 명이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장례식 퍼포먼스를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모인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노래방 영업을 허가한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액자에 넣어 검은 띠를 두르고, 절을 하는 등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해당 퍼포먼스에는 화환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주간의 휴업 권고를 아무 조건없이 이행했고, 지난 5월에는 50일간의 강제 집합금지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면서 “코인노래연습장에서의 확진자가 전혀 없음에도, 집회발·교회발·소모임발 확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8월부터 또다시 2차 강제 집합금지 명령이 시작됐다. 9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우리 업주들은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이대로 가면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이날 업주들은 호소문 낭독과 장례식 퍼포먼스 이후 서강대교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만류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행진 행사는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후 1시께 시작된 이번 퍼포먼스는 오후 2시께 끝이 났다.

이들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의 상징이다. 그래서 여기에 모였다”면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해매는 업주들에겐 매일이 장례식과 같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만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

갈 수 있게 해달라”며 “우리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난 14일 종료했다. 하지만 대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이달 27일까지 연장됐다. 이 때문에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은 여전히 영업을 불가능한 상태다.

## 동료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50대 2심서 감형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순천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던 B(58)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함께 일해왔다. A씨는 B씨가 자다 일어나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마구 때렸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를 수소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B씨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평소 친밀했던 B씨와 술 취한 상태에서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B씨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 원을 전달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함평서 40대 농기구 휘둘르고 자해...4명 부상

전남 함평에서 40대가 농기구를 휘둘러 4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19일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2분께 함평군 모 마을에서 A(41)씨가 B(51·여)씨의 차를 멈춰 세운 뒤 B씨에게 낫을 휘둘렀다.

A씨는 이내 주변 공사장에서 ‘도망가리’고 외치던 C(41)씨를 습격했다.

이어 자신의 고향집 이웃인 D(70·여)씨와 E(52·여)씨에게도 낫을 휘둘러고 자해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4명 중 2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과 A씨도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지자 지난 18일 어머니와 친형이 사는 고향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태권도 품새 왜 틀러’ 7살 원생 때린 관장 벌금형

‘품새를 틀린다’는 등의 이유로 일곱 살배기 원생을 막대로 때린 태권도장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태권도장 관장 A(31)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B(7)군이 ‘승품 심사 준비를 위한 연습을 잘 따라하지 않는다’며 B군을 옆드리게 한 채 플라스틱 막대로 엉덩이·발바닥을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여름 ‘품새를 틀린다’는 이유로 B군의 허벅지·가슴·옆구리 등을 같은 막대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보호자인 A씨가 아동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목포해경, 암태 선착장서 해상 추락한 60대 부부 구조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8시4분께 전남 신안군 암태도 남강선착장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A(65)씨 등 2명을 구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부 관광객인 이들은 저녁식사 후 선착장을 걷다가 선박을 수중에서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경사지 근처에서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했으며, 인근 여객선 관계자가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로프를 이용해 해상에 추락한 A씨 등 2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A씨 부부는 저체온증과 경미한 찰과상을 입어 구급대에 인계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광주시, ‘2단계’ 일주일 연장...집합금지 13종 영업 허용

### 방역수칙 강화·엄수 조건 하 사회·경제적 활동 보장



10일 광주 북구 일곡동 모 PC방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PC방에 대해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날 정오부터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된다.

다만 대부분의 집합(운영)금지 시설이 ‘집합 제한’으로 하향 조정됐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 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지역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돼 있고, 추석 명절 중 재유행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단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4종 중점관리시설 중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 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은 ‘집합제한’으로 조정, 사실상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지역 신규 확진자가 지난 11일 이

후 나흘째 발생하지 않고 있는 만큼, 방역망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던 북구 역시 방역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집합 제한 시설로 완화된 13종 시설은 ▲유흥주점 ▲볼라텍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판촉홍보관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이다.

시는 엄격한 방역 수칙 적용을 조건으로 걸었다. 모든 완화 시설은 출입명부·방역수칙 점검일지를 갖추고 작성해야 한다. 하루 2차례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 유증상자는 곧바로 퇴근 조치해야 한다.

시설 소독·환기도 매일 주기적으로 해야하고,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와 손소독제 비치도 엄수해야 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과 볼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지에서는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노래반주기구를 갖춘 업장은 이용객 퇴실 직후 방과 마이크 등을 소독해야 한다.

목욕탕·사우나도 심야 영업을 제한한다.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모임 수 없으며, 뷔페는 최소 1m 이상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공용 집게 사용 시 비닐장갑 착용이 의무화된다.

방문판매업 시설은 4㎡당 이용객 1명 등 간격 유지와 실내 50인 이상 모임 안 된다. 불법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 집합행위도 금지된다.

종교시설도 1인 간격 유지를 엄수해야 하고 50인 이상 집합, 소모임, 음식 제공·단체 취식은 금지된다.

기존 ‘집합 제한’ 시설도 인원 제한이 1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됐다. PC방·게임장·오락시설은 출입제한 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낮췄고, 전면 금지됐던 음식 판매·섭취도 2인 미만 조건으로 허용한다.

기동취재본부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